

A photograph of the 9/11 Memorial's reflecting pool in New York City. The pool is a large, rectangular, dark water feature with a central square pit. In the background, the Twin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are visible, partially obscured by other buildings and trees. The sky is clear and blue.

9/11

방문 가이드 2026

9/11 메모리얼 & 뮤지엄

뉴욕 · 시작가 31.65€

<https://911memorial.visit-tickets.com/ko/> · 패스트 트랙 티켓 & 요금

역사 & 경험

기원 & 역사

비극에서 탄생한 기억의 장소

GOOGLE **4.8** ★★★★★ 94 432 후기

TIQETS **4.9** ★★★★★ 6 352 후기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은 뉴욕의 지평선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무역 센터 쌍둥이 타워가 무너지던 그 날, 2,977명의 생명이 앓아가졌고, 이는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를 넘어 인류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수년간 공터로 남아있던 이 자리는 침묵과 슬픔을 품은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열린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와 피터 워커(Peter Walker)의 '결핍을 반영하는(Reflecting Absence)' 설계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물리적인 기념비가 아닌, 사라진 탑들의 흔적을 통해 방문자에게 명상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념관의 핵심인 두 개의 분수대는 원래 타워들이 서 있던 정확한 위치, 즉 '발자국(Footprints)'에 조성되었습니다. 9.1미터 깊이의 이 우물들은 거대한 폭포처럼 물을 떨어뜨리며, 그 소리는 주변의 도시 소음을 압도하고 방문자를 고요함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바닥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어, 각 이름이 추모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배치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가족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거나 강한 유대를 가졌던 사람들을 인접하게 배치함으로써 '유의미한 인접성'을 구현했습니다. 이는悲痛한 기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물관은 2014년 5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헌정식 이후 일반 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이 시설은 당시 구조 활동 중 발견된 원형 강철 빔(Steel Beam)과 같은 거대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의 혼란과 용기, 그리고 상실감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박물관의 설계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마스터 플랜을 따르되, 타워 발자국을 덮지 않는 유일한 최종 후보로서 독창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축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장소는 2001년의 비극뿐만 아니라 1993년 폭발 사건에서 사망한 6명도 추모합니다. 이러한 포용력은 해당 지역이 테러의 역사 속에서 이미 영향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며, 기억의 층위를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분수대 주변에 심어진 습지 백송나무(White Oak) 숲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재생되는 삶을 상징하며, 콘크리트 정글 한복판에서 귀중한 녹색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라며, 생명력의 지속 가능성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경험

그린위치 스트리트(Greenwich Street)를 따라 걸어 들어가면, 먼저 마주치는 것은 압도적인 침묵입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분수대는 마치 대지의 눈물처럼 보이며,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외계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방문자는 즉시 일상적인 시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신성한 공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빛이 분수대의 물 위에 반사되며,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면은 차갑지만 따뜻한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며 박물관으로 진입할 때, 분위기는 더욱 밀집되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어둡고 몰입감 있는 홀에서는 유물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녹슨 철조망이나 태운 신발 한 켤레조차도 강력한 이야기를 전하며, 방문자의 마음을 흔들습니다. 오디오 가이드의 전문 해설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명확히 해주어,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 경험은 감정적으로 강렬하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일깨우는 깊은 여정이 됩니다.



방문 준비하기

실용 정보

주소

금용 지구 · 지하철: Cortlandt St (A, C, E) 또는 Fulton St (A, C, E, J, Z, 2, 3, 4, 5).

운영 시간

박물관은 화요일(예외 제외)과 9월 11일에 휴관합니다. 야외 기념관은 연중 무휴로 개방됩니다.

요금

4세 미만 어린이 무료. {promo}. 예약 시간을 보장하려면 몇 달 전에 미리 예약하세요.

방문 소요 시간

박물관을 여유롭게 둘러보기 위해 45~90분 정도 계획하세요. 보안 검색과 생체 인식 터미널에 추가로 30분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

일부 구역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만, 민감한 유물 근처에서는 금지됩니다. 현장의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대상 고객

강렬한 콘텐츠로 청소년(+12세)에게 권장됩니다. 야외 기념관은 사전 준비를 통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접근 가능합니다.

찾아오는 길

접근 & 교통



서브웨이

: WTC Cortlandt — 1 min à pied

뉴욕 모이니언 트레인 홀 앳 펜스테이션 (17 min) ·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19 min)



버스

: WTC Cortlandt — 1 min à pied

뉴욕 모이니언 기차 홀 (펜스테이션) (27 min) · 그랜드 센트럴 역 (30 min)



자동차

뉴욕 모이니언 기차 홀 (펜스테이션) (19 min) · 그랜드 센트럴 역 (21 min)



시티바이크 / 자전거

뉴욕 모이니언 기차 홀 (펜스테이션) (24 min) · 그랜드 센트럴 역 (27 min)

LOCALISATION

Où se trouve 9/11 메모리얼 & 뮤지엄 ?



📍 180 Greenwich Street — NY 10007 뉴욕

🌐 40°42.692' N, 74°0.824' O



조 직

지상부터 지하까지의 여정

지상 (메모리얼 공원)

트윈 타워의 발자국에 위치한 두 개의 거대한 분수대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습지 백송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테두리를 따라 걸며 명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무료이며 연중무휴로 개방됩니다.

지하 1층 (박물관 입구 및 로비)

자유 거리(Liberty Street)를 통해 접근하며, 엄격한 보안 검색을 통과합니다. 로비에는 대규모 강철 빔과 같은 주요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오디오 가이드 대여 데스크가 있습니다. 박물관 본체로 들어가기 전 준비를 하는 공간입니다.

지하 2~3층 (전시 홀)

사건의 타임라인, 생존자 증언, 구조 활동 기록 등 다양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Last Column' 홀에서는 마지막 붕괴된 기둥이 전시되어 있으며, 'Survivors' 홀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제한되는 민감한 구역이 많으므로 안내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접 근 성

장애인 접근 시설

엘리베이터 및 전용 램프를 갖춘 박물관 및 공원 전체 PMR 접근성.

가족 동반

청소년 대상 강렬한 콘텐츠; 외부 기념관은 부모의 사전 준비 하에 접근 가능.

오디오 가이드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필수 코스

선택

추모와 회복의 핵심 순간들

01

지상 공원

반사 분수대 (Reflecting Pools)

트윈 타워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9.1미터 깊이의 분수대는 방문자를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다가옵니다. 물이 가장자리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가리며, 침묵의 명상을 유도합니다. 바닥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각 이름이 추모의 중심이 됩니다.

💡 분수대의 깊이는 9월 11일을 상징하며, 디자인은 '결핍' 자체를 기념물로 삼은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02

지상 공원

생존자 트리 (Survivor Tree)

테러 당시 폐허 속에 버려졌으나 구조되어 다시 꽃을 피운 백단풍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회복력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수많은 방문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아침 일찍 방문하면 사람 없이 단독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 이 나무는 재건 과정 중 특별히 보존되었으며, 매년 봄이면 새로운 잎을 틔우며 희망을 전합니다.

03

박물관 지하

마지막 기둥 (The Last Column)

세계 무역 센터 남쪽 타워에서 마지막으로 붕괴된 강철 기둥입니다. 이 거대한 유물은 구조대원들의 용기와 사건의 규모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기둥의 변형된 형태는 당시의 격렬한 충돌과 열을 직관적으로 전달하여, 방문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 이 기둥은 구조 활동 중 발견되었으며, 박물관의 중심 전시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04

분수대 테두리

희생자 이름 목록

2,977명의 희생자 이름은 '유의미한 인접성' 원칙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서로 가까이 있도록 설계되어, 추모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닌, 관계와 공동체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 배치 과정에는 가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으며, 이는 매우 세심하고 감정적인 작업이었습니다.

05

박물관 내

오디오 가이드

9개 언어(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ASL 등)로 제공되는 전문 해설입니다. 복잡한 역사적 전시품과 유물에 대한 문맥을 명확히 해주어, 방문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어두운 홀에서 각 유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오디오 가이드는 QR 코드나 대여 단말기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11입니다.

06

박물관 전시

1993년 폭발 사건 추모

2001년 테러보다 앞선 **1993년 2월 6일** 폭탄 테러에서 사망한 6명도 함께 추모합니다. 이는 해당 장소가 이전에 테러 폭력으로 인해 이미 영향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며, 기억의 장소에 추가적인 역사적 의미 층을 더합니다.

💡 이 포함은 연속적인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모든 희생자를 동등하게 기억하려는 의도입니다.

07

지상 공원

습지 백송나무 숲

분수대 주변에 심어진 **White Oak** 숲은 맨해튼의 콘크리트 환경과 대비되는 차분한 자연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파괴에도 불구하고 재생과 지속적인 삶을 상징하며, 밀집하고 시끄러운 도시 중심부에 귀중한 녹색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 나무들은 생태적 회복을 상징하며, 방문자들에게 시각적 및 정서적 안식을 줍니다.

08

박물관 지하

생존자 증언 홀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의 직접적인 증언 영상이 상영되는 공간입니다. 강렬한 이미지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사건의 인간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방문자에게 깊은 공감과 슬픔을 유발합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 콘텐츠입니다.

💡 증언들은 실시간 반응을 기록한 것으로, 사건의 즉각성과 혼란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팁

깊은 공감을 위한 방문 팁

TIMING

예약된 시간보다 반드시 **30분** 일찍 도착하세요. 보안 검색은 공항과 유사하게 엄격하며, 지연 시 유료 박물관 방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ARCOURS

아침 일찍 무료 야외 기념관부터 시작하여 고요한 분위기를 즐긴 후, 혼잡한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PAUSE

방문 후 **Fulton Street** 주변의 레스토랑이나 푸드 홀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동적인 방문 후 휴식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AUDIOGUIDE

오디오 가이드는 복잡한 전시품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 제공되며, 대여 비용은 \$11입니다.

BILLET

티켓은 최대 6개월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주말과 여름 방학 기간에는 매우 빠르게 매진됩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하세요.

PHOTO

생존자 트리의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면 개장 직후 이른 아침에 가세요. 하루 종일 밀집한 군중으로 인해 단독 사진이 어렵습니다.

ENFANTS

박물관 콘텐츠는 강렬하므로 청소년(+12세)에게 권장됩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방문 전에 역사적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여 사전 준비를 하세요.

CONFORT

넓은 외부 분수대 주변을 걷고 지하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오르는 등 많은 보행이 필요하므로,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방문을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한가요?

네, 예약은 필수이며 최대 6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대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특히 주말에는 티켓이 빠르게 매진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방문 날짜를 확인하세요.

기념관을 방문할 때 티켓 없이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곳은 별도의 출입구입니다. 실외 기념관은 무료이며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박물관은 별도로 구매한 유료 티켓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박물관 티켓 없이는 교차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은 티켓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방문 며칠 전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추가 요금을 피하려면 구매 시 특정 약관을 확인하세요. 유연성은 사용된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인 요금이 있나요?

학생, 노인 및 미국 군인을 위한 우대 요금이 있습니다. 4세 미만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무료 입장을 제공합니다. 예약 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기념관과 박물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념관은 이름이 새겨진 반사 연못이 있는 무료 실외 공원입니다. 박물관은 유물과 역사적 전시물을 소장한 유료 실내 건물입니다. 이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구별되는 두 가지 경험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야릇한 사실 & 흥미로운 정보

결핍을 반영하는 디자인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와 조경가 피터 워커는 물리적 존재가 아닌 결핍을 기반으로 한 대담한 디자인으로 2004년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트윈 타워가 서 있던 정확한 위치에 두 개의 반사 분수대를 사용하여 침묵의 명상을 초대합니다.

깊이와 리베스킨트 계획

기념관은 거리 수준보다 **9.1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생각과는 달리, 우승한 디자인은 건물이 터빈 부지를 덮어야 한다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유일한 최종 후보였습니다.

2014년 박물관 개관

박물관은 2014년 5월 바락 오바마의 공식 헌정식 여섯 날 후에 일반 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11년 9월 테러 발생 10주년 기념일에 열린 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기념관(메모리얼)이라는 것입니다.

1993년 폭발 사건

기념관은 또한 2001년 9월 비극보다 훨씬 앞선 **1993년 2월 6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탄 테러에서 사망한 6명도 추모합니다. 이러한 포함은 해당 장소가 이전에 테러 폭력으로 인해 이미 영향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기억의 장소에 추가적인 역사적 의미 층을 더합니다.

박물관 주변

금융 지구(Financial District)는 역사와 현대성이 교차하는 활기찬 곳입니다. 방문 후 원월드 옵저버토리로 올라가면 맨해튼의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처 페더럴 홀에서는 조지 워싱턴의 취임 선서 장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미국 초기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로는 Fulton Street 주변의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푸드 홀을 추천합니다. 또한 세인트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는 9/11 영웅들을 위해 재건된 교회로, 영적인 성찰과 고요함을 원하는 방문자에게 이상적인 휴식처입니다. 공식 기념품 매장에서 의미 있는 추모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9/11 메모리얼 & 뮤지엄 방문은 단순한 역사 학습을 넘어, 생명 존중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곳에서의 고요함은 방문자에게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하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대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시길 권합니다.